

유희열 광주경총회장 노사발전위 회의



유희열(세화아이엠씨 회장) 광주경총회장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10시30분 광주 하남산단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남산단 내 고용·노사관계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평화 구축을 위한 '하남산단 고용·노사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서정자씨 '나혜석학술상' 최우수상



서정자 전 초당대학교 부총장이 최근 나혜석 연구에 대한 공로로 '제1회 나혜석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혜석 기념사업회는 여권운동의 선구자였던 나혜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나혜석 학술상'을 제정했다.

임성민, 미국인 교수와 10월 결혼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42)이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화제작을 지도하고 있는 미국인 교수와 오는 10월14일 광주 동 레라뷰웨이크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림 한점 한점에 한센인들의 꿈 가득”

19일부터 소록병원서 '아기사슴-행복한 웃음' 전시회

소록도 한센인들의 꿈과 행복한 웃음이 오는 19일부터 소록도 병원 신관에 마련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아기사슴-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센인 환자들이 직접 그린 작품 80여 점과 자원봉사자와 병원 가족들이 그린 작품을 포함해 100여 점이 선보인다.

80평생, 손에 연필 한번 제대로 쥐어보지 못했던 김모 할머니가 붓을 잡고 부채에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이 모두 헐고 뭉개져 겨우 근육 움직임 정도밖에 없어 손목에 고무줄로 붓을 묶었다. 주황색, 파란색, 오방색의 물감을 이용한 훌륭한 그림이 부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고흥 소록도의 한센인 가족들이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캔버스와 판자에 모래와 조개로 작품을 완성했다.

모두 소록도에서 40여 분 거리에 떨어진 남포미술관 관형수(61) 관장이 마련한 행사다. 그리고 한국미술사의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관 관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록도와 인연

을 맺었는데, 지난 5월 신관 리모델링 기념으로 작가 일곱 분의 작품 26점을 현관로비에 전시하면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지 걱정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끝 자락 외딴 섬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손가락이 없고 종풍, 고령에 붓을 잡기조차 힘든 마당에 괜한 짓을 한다는 소리가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 그림을 그리고 나서 평생 소원을 풀었다며 울먹이는 할머니, 평소 웃음이 없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 등 관객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걱정은 괜한 것이 됐다. 어르신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동심으로 돌아갔다. 또 소록도에서 주위오고 담아온 조개, 모래, 콩 등으로 '오브제'도 만들었다. 그렇게 글과 그림 80여점이 완성됐다.

관형수 관장은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컷팅을 병원이거나 미술관 관계자, 외부 인사가 아닌 오로지 소록도 어르신들이나 가위를 들고 자를 계획이다"



며 "함께하면서 맑게 웃고 기쁨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센인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남포미술관은 전시 작품과 제작과정을 별도의 도록으로 제작, 항상 집에서도 펼쳐보며 희망과 웃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위염·장염·종기 부스럼 치료제로 사용

<61> 약난초



약난초는 30~50cm 자라는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내장산 이남의 산지 숲속의 약간 습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다.

약난초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한방에서 위염이나 장염 또는 종기 부스럼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강운태 시장 부상 소방관 위로·격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지난 1월 흑한기에 아파트 상가 고드름 제거 작업 중 다리 골절상을 당해 입원치료 중인 노은호(28) 광산소방서 소방사를 찾아 위로·격려했다. <광주시청 제공>

금호CC, 골프장 개장 축하쌀로 불우이웃 돕기



광양 금호cc(주)는 최근 피3 골프장을 개장하면서 받은 축하 쌀 20포를 봉강면 불우이웃에 돕기에 써달라며 기증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주보훈청-향금박취부대 소외계층 의료지원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지난 13일 제11공수특전여단(여단장 문영기)과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가유공자들과 소외계층 등 150여명에게 대인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교통사고 1위 오명 씻기 광주 TBN이 나섭니다”

광주교통방송 김홍근 본부장 취임 100일

“광주가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문화개선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품격있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방송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도로교통공단 TBN광주교통방송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홍근 본부장이 15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본부장은 1984년 청주MBC에 입사한 후 20여년 동안 라디오와 방송을 오가며 수많은 프로그램 제작·방송한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교통관련 프로그램인 '푸른 신호등' 담당 PD를 맡아 활동하면서 교통방송과도 인연을 맺었다.

김 본부장은 “광주와의 인연이 처음인데, 격정과 달리 전라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낀 반면 교통문제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전파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방송은 물론 470여명의 통신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밀착형 코너를 신설하

고, 청취자 참여코너를 확대해 시민과 방송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교통 요충지에 통신원 및 중계차를 파견해 보다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교통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교통가족 노래자랑 등 공개방송을 확대하고, 진행자·오락·공익·정보·음악이 조화를 이룬 방송을 만들겠다”며 “특히 최근 최대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그린 캠페인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름다운 장학금

동료 구하려다 숨진 임정식씨 유가족 백운장학회 500만원

실종 동료 수색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임정식(31)씨 유가족이 광양시 (재)백운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포스코 자회사에 근무하던 고 임정식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0분경 실종 신고된 직장 동료를 수색하던 중 광양읍 초남교 수중보 아래에서 급류에 휘말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모친 강은희(55)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고인의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고 지역 인재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

라는 뜻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백운장학회는 1991년 설립되어 시 출연, 기업체·시민의 자

발적인 기탁으로 141억9600만원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모두 2331명 31억9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아덴만 영웅’ 최영함 조영주 함장, 고향에 100만원 기탁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청해부대 ‘최영함’ 조영주 함장이 14일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 출신인 조 함장은 지난 1982년 군산고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 청해부대 최영함(4500톤급) 함장을 맡아 ‘아덴만의 영웅’(작전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조 함장은 “고향 발전과 함께 후배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교육 발전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군산이 새남극과 함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동신 시장은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하여 헌신 봉사하는 리더십을 갖춘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군산출신이라 더욱 자랑스럽다”며 “조 함장의 뜻을 받아 군산

을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조 함장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아덴만에서 선박 호송임무를 맡아 왔으며, 지난 1월 소말리아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한명의 희생도 없이 구출해냈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nogusu@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0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조병제·김수지씨 장남 민철군 김경곤(전 광주지검 사건과장)·문정실씨 차녀 세하양=16일(토) 오후 1시 서울 명동 대성당.

동창·동문회

▲제19차 ROTC 광주전남 총동우회 정기총회=15일(금) 오후 6시 30분 포에버 리더스 클럽(금남로 5가 교보빌딩 10층) 062-529-2944.

종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 종친회(회장 정학균) 야유회=23일(토) 오전 9시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자연휴양림. 출발장소는 유담경기장 정문 앞

011-613-3388, 011-631-7788.

부음

▲이안순씨 별세 정구홍·구호·구일·구역·광희·경희씨 모친상=발인 15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진원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국비지원혜택·고용보통가급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순비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 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및 에어로빅, 자원자격을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웅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지회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 1회(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

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상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

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

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보통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

6495-5728.

Advertisement for '삼가 故인의冥福을 빕니다' (Respectfully offering funeral services for the deceased). It lists details for several families, including nam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ykumho' funeral home.

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보통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Advertisement for '故인의冥福을 빕니다' (Respectfully offering funeral services for the deceased). It lists details for several families, including nam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reen Funeral Home'.